

푸치니...드뷔시...라벨... 잠 못드는 밤 환상 무대



광주문화재단
Gwangju Cultural Foundation

청년예술단체
7월 목요일콘서트

여름밤 즐기는 환상 무대, 광주문화재단의 7월 목요일콘서트가 공개됐다. 재단은 오는 4일과 11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8회차, 9회차 목요일콘서트를 개최한다.

오는 4일 8회차 공연은 노이어앙상블의 푸치니 서거 100주년 기념 '푸치니 프리뷰' 공연이다.

이탈리아 작곡가 푸치니의 대표 오페라 곡을 쇼케이스 형식으로 구성했다. 1부에선 크리스마스 무렵 단골공연으로 손꼽히는 오페라 '라보엠'을 들려준다. 파리 뒷골목 가난한 예술가의 삶 속 희로애락을 담은 곡이다. 2부는 오페라 라보엠 대표 아리아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무대를 펼친다. 푸치니 특유의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는 성악 공연을 선보인다.

노이어앙상블은 'Neuer (새로운 것)'을 'Ensemble (함께)' 한다는 의미

4일 노이어앙상블
오페라 '라보엠' 공연

11일 아르플레닛
'색채의 멜로디' 무대

로, 2023년 결성된 청년 신진 예술단체다.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공연 출연진은 테너 김진우·장재연·여혁인·유현상, 바리톤 정주도·조재경, 소프라노 신은선·김수민·김주연, 피아노 김성근이다.

11일 9회차 목요일콘서트 공연은 아르플레닛의 '색채의 멜로디' 무대다. 인상주의 작곡가 드뷔시와 라벨의 곡을 지역 청년작가 유소연의 '위안의 여정' 작품과 함께 선사한다. 피아노 연주와 함께 유 작家的 그림이 스크린으로 송출돼 시각·청각적으로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피아노 최혜지의 드뷔시 '꿈', 피아노를 위하여 중 1번 프렐류드, 피아노 백계준의 라벨 '고풍스러운 미뉴에트', 드뷔시 '달빛', 피아노 기민호의 드뷔시 '렌토보다 느리게', 라벨 '겨울 중 3번 바다위의 조카베', 피아노 정재은·양다원의 드뷔시 '개 의 손을 위한 작은 모음곡'이다. '아르플레닛'은 청년 신진 예술단체

로 다양한 음악과 시각적 요소를 가미한 창의적인 기획공연을 선보이고 있으며, 지역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신진예술인 육성과 문화예술 발전에도 기여한다.

목요일콘서트 입장료는 1인당 5천원이며, 수익금은 전액 공연팀에 전달된다. 한편, 전문 공공기관으로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ESG 경영과 문화로 통한 지역사회 공헌 실천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객석의 10% 이상(10석 내외)은 광주 문화누리 이용자를 위한 무료 좌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재단 및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문화예술통합플랫폼 '디어마이광주'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최명진 기자



노이어앙상블



아르플레닛

남도국악원 개원 20주년 기념사업 '다채'

'회고와 전망' 토론회부터 해외동포 축하공연까지

국립남도국악원이 개원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오는 4일 오후 1시30분 세미나실에서 '국립남도국악원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악원의 사업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1부에서는 공연·교육·연구 등 각 사업별 성과와 전망을 논의하고, 2부

서는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5일에는 기념식 및 축하공연도 이어진다. 이날 자리에서는 남도국악원 직원 및 단원, 지역 예술인 및 유관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 20년 간의 발전과 성과를 돌아본다. 아울러 관련 유공자 시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6명, 국립국악원장상 10

명, 국립남도국악원장상 5명)도 이어진다. 오후 3시30분부터는 대표 공연인 '첫 김곳'으로 축하 무대를 갖는다. 해외동포 초청 순회공연도 펼친다. 2006년부터 진행된 '남도국악원 해외동포 및 국악단체 초청 연수 사업'을 거처간 18개국 74개 단체 중 5개 단체를 선정해 8월 한 달 간 진도와 서울, 부산에서 공연을 연다. 공연팀은 러시아(소운무용단·풍물

패 맥), 헝가리(한국전통공연예술단), 미국(뉴욕한국공연예술센터), 에스토니아(아리랑무용단) 4개국 37명이다. 남도국악원 20년 역사와 주요 성과를 조명할 책도 발간한다. 이달 중 집필자 구성을 완료하고, 오는 12월 총 1천부를 제작 및 배포할 예정이다. 남도국악원 관계자는 "이번 20주년 행사가 남도국악원 역사와 위상을 대내외로 널리 알리고, 향후 역할과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귀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근현대 '신여성'을 향한 초월의 몸짓

국립현대무용단 '여자야 여자야' 'ACC 초이스' 무대 5-6일 극장1

우리나라 근현대를 살았던 '신여성'을 향해 질문을 던지는 과격적인 무용 공연이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오는 5-6일 ACC 예술극장 극장1에서 'ACC 초이스' 세 번째 작품으로 국립현대무용단의 '여자야 여자야'를 무대에 올린다.

시대와 사람을 고찰하는 안무가 안은미는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를 필두로 할머니·아저씨·장애인·외국인 등과 함께 무대를 꾸리며 세대·신체·문화적 다양성을 품은 작품들을 선보여 왔다. 매 공연마다 관습의 틀을 깨는 과격적인 춤으로 30년 넘는 시간 동안 세계 무용계에서 주목을 받는 예술가다.

이번 공연에서는 안은미가 지난 인류학적 호기심과 질문을 근현대를 살았던 '신여성'에게 던진다. 신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나왔으나 시대의 벽에 부딪혀 좌절하면서도 각자 자기만의 삶을 살았던 여자들의 면면을 담는다. 공연은 움직임의 변화뿐만 아니라 단발, 장신구, 의복 등으로 환치시키기도 하고 그 시대 유행어나 신조어로 사회·문화적 변화 양상과 병치하기도 하며 시청각적으로 풍부하게 드러낸다. 또 그들이 남긴 조각들이 이후의 시대를 거쳐 오늘에 어떻게 이르게 됐는지 대하드라마적인 스펙트럼을 현대무용 작품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김선욱 ACC재단 사장은 "이번 공연은 어렵게 느껴졌던 현대무용을 쉽고 재밌게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여자야 여자야' 공연은 5일 오후 7시30분, 6일 오후 3시 총 2회 진행된다. /최명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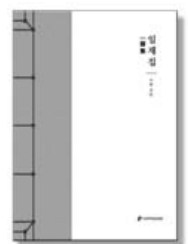
일제 이항 학문·사상 고찰

내일 한국학호남진흥원 학술대회

한국학호남진흥원은 오는 4일 오후 1시30분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일제(一齋) 이항(李恒)의 학문과 사상'을 주제로 제7회 호남문화심층연구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일제 이항은 16세기 호남을 대표하는 도학자로서 당대 저명한 학자들과 성리학의 주요 쟁점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벌였던 인물이다. 그가 남긴 저술은 1673년 '일재집(一齋集)'이라는 시문집으로 처음 간행됐다. 진흥원은 올해 '일재집' 국역본을 출간, 이항이 추구한 학문과 사상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이항이 여러 문인이나 지인들과 주고받은 제문(祭文), 만시(晩詩), 간찰(簡札) 등에서는 16세기 학자들의 인적 네트워크는 물론 그 속에 담긴 당대인들의 고뇌와 삶을 엿볼 수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총 2부로 진행된다. /최명진 기자



1부는 나상필(한국학호남진흥원)의 사회로 ▲오보라(고려대) '일제 이항의 학문 위상과 교유양상' ▲안유경(경북대) '일

제의 성리학적 특징 고찰' ▲이종근(세전북신문) '이항과 정읍 남고서원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주제발표로 구성됐다. 2부 종합토론에선 김창호(원광대)를 좌장으로 최해미(충북대), 이형성(전남대), 조일형(한국학호남진흥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선착순 100명에게는 국역본 '일재집' 1책과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흥영기 원장은 "국역을 활용한 문화원형 콘텐츠 발굴 및 활용 등을 통해 자료의 가치와 의미를 지역민과 함께 향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지사 061)278-0740
- 남문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나주시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원지국 955-0451
- 광신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